



민·관·군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인력·중장비 긴급투입, 용호펌프장 설치 등 항구적 대책 마련키로

재난지원금 3억6,400만원 지원

남구는 지난달 27일 내린 집중호우로 남구 지역 곳곳의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자 당일 즉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민·관·군으로 구성된 복구반을 편성, 빠른 수해복구를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다. 남구는 또 이번 폭우로 침수된 356세대(세대당 100만원)와 부상자 등에 재난지원금 3억6,400만원을 신속히 지원해 피해 주민의 자활의지를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왔다.

▲**피해 현황**=지난달 27일 새벽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돼 교통이 통제되고 저지대 주택가가 물에 잠기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용호동 지역의 피해가 컸다. 시간당 60~7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삼성시장을 비롯한 용호로 주변 상가와 주택 799개소가 호우 피해를 입었다.

용호4동 H아파트 뒤 옹벽이 이번 폭우로 길이 15m의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해 68세대 160여명이 간밤에 인근 학교 강당으로 긴급 대피했다.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해 대한적십자부산지사는 급식차량 1대와 응급구호품 70세트, 라면과 생수 등을 긴급 지원했다.

용호2동 운산초등학교 앞 도로가 많은 비로 인해 파손됐으며 동산그린빌라(백세교)일원 역시 계곡부 사면이 유실되는 피해를 당했다.

오륙도 해맞이 공원 일원 사면이 유실되면서 인근 아파트 주차장 등이 물에 잠겼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도 이번 폭우로 무료급식소 등이 위치한 지하1층이 물에 잠기고 건물 일부가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비 피해가 용호동에 집중된 것은 장자산과 봉오리산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폭우와 만조시 용호로 일원의 배수가 원활치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



허남식 시장 수해지역 방문 허남식 시장은 지난달 28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용호지역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피고 주민과 복구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했다. 허 시장이 남구청장, 김무성 국회의원 등과 함께 용호동의 항구적인 복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졌다.

대연동과 감만·우암·용당·문현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중앙합동 조사 결과 지금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는 도로파손·침하 13건, 사면유실·붕괴 44건 등이며 피해액은 32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243억4천만 원으로 조사됐다.

▲**복구 상황**=집중호우로 용호지역 등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남구는 수해복구를 위해 주민과 공무원 해군 장병 등 모두 3,191명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 361대를 동원해 안전조치와 응급복구에 적극 나섰다. 남구는 전체 직원의 절반을 동원해 지난달 27일부터 9일간 수해지역 복구작업에 투입했다. 이와 함께 남구는 주요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폭우로 옹벽 붕괴 위험이 높아 입주자들을 긴급 대피 시켰던 용호4동 H아파트의 경우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아 현재 사면보강과 옹벽 보강공사에 한창이다. 이와 더불어 옹벽 벽면의 붕괴를 막기 위해 비계메기 지지대를 설치하고 산지 배수로를 정비했다. 남구는 항구 복구를 위해 복구 사업비 35억여 원을 소방방재청 등 해당 기관에 건의해 놓고 있다.

남구는 지난 22일 남구재난지원금에서 긴급 및 항구용역설계비와 응급복구비 6억원을 지출 결정하고 향후 용역 설계 결과에 따라 항구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용호동일원의 침수예방 대책도 수립됐다. 이번 비로 용호로 주변상가와 주택 등 730개소가 물에 잠기자 남구는 재난복구사업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막기로 하

고 현재 164억원의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다. 장자산과 봉오리산 사이에 위치한 용호동의 모든 하수와 우수는 용호로에 설치돼 있는 하수박스로 유입돼 집중호우와 만조시에는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상시 침수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배수펌프장 설치를 건의한 것이다.

큰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도로가 파손된 용호2동 운산초교 앞 도로와 계곡부 사면이 유실된 동산그린빌라(백세교)일원의 응급 복구도 완료됐다.

이밖에도 응급복구를 마친 백운초등학교 일원과 오륙도 해맞이 공원 일원에도 예산을 들여 하수박스 크기를 확대 설치하고 사면·수로를 정비해 항구복구 할 예정이다.

한편 남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들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긴급 방문해 복구 현황을 살피고 복구반원들을 격려하며 조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무성 국회의원은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27일 용호1동 삼성시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복구작업에 나섰으며 지난 5일에도 용호동 주요 수해지역을 찾은 등 5회에 걸쳐 복구 현황을 살피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허남식 시장과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및 행안부에 요청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원, 부산시 재난관리기금 2.5억원 등 4억원의 응급복구 지원금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복구비 확충을 위해 소방방재청에 복구사업비 80억원과 개선포함비 163억원 등 모두 243억원의 예산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김정호 국회의원도 지난달 28일 몇 년 전 수해를 겪었던 대연3동 신원아파트 일원 배수지를 찾아 현황을 살폈다.

각 지역 시·구의원을 역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복구작업에 나섰다.



일제 강제동원 역사기념관 기공식이 지난 11일 당곡공원에서 열렸다.

일제 강제동원 역사기념관 들어선다

당곡공원에서 기공식... 내년 12월 준공예정

일제의 강제동원 실상을 알리고 역사의를 높이기 위한 '일제 강제동원 역사 기념관' 건립의 첫 삽을 떴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대연4동 당곡공원에서 기념관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병주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고윤환 부산시 행정부시장, 남구청장, 김무성·김정호·김형우 국회의원,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내년 12월 준공예정인 기념관은 당곡공원 내 7만5천465㎡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4층, 전체면적 1만 2천62㎡ 규모로 지어진다. 각종 전시실과 기록관리실, 추모탑 등을 갖춘다.

지원위원회는 기념관이 완공되면 2005년부터 6년 동안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당시 기록물과 물품, 사진 등 30여 만점의 사료와 유물 등을 전시해 내외국인과 후세들에게 강제동원 피해의 생생한 실상을 보여줄 계획이다.

오병주 위원장은 이날 "기념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추도·기념시설로 일반 시민에게는 일제 강제동원 역사교육 공간과 지역주민의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 대연4동 당곡공원에 기념관이 들어서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 부산항이 강제 동원 출발지였다는 점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22% 가량이 경상도 출신이었다는 점이 고려돼 2008년 9월 부지로 확정됐다.

남구 국민체육센터 구청에서 직영

이용요금 대폭 인하, 셔틀버스 증차 등 서비스 확대

남구는 지난 1일부터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해 3월 개관 이후 지금까지 (사)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에 위탁 운영해 오다 공공형령 등으로 물의를 빚자 위·수탁협약을 해지하고 직접 운영에 들어간 것.

남구는 직영을 통해 위탁운영에 따른 비리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

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센터를 운영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구는 국민체육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현재 접수 중인 9월 프로그램부터 수강료를 10% 인하했다.

또한 셔틀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월부터 버스 2대를 증차한다.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전철 서비스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607-4932, 626-8200

■이용요금 인하 내용

프로그램	인하전요금	인하후요금	비 고
수영 (매일 (월~토))	66,000원	60,000원	어린이, 청소년 등은 해당 요금에서 10% 할인요금 적용
헬스 (매일 (월~토))	44,000원	40,000원	
댄스 (월·수·금)	44,000원	40,000원	
요가 (화·목)	33,000원	30,000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산항 순환도로 14년만에 완전 개통



감만동과 좌천동을 잇는 부산항 순환도로가 지난 5일 개통됐다.

우암로 교통정체현상 해소 기대

감만·우암·용당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부산항 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됐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감만동과 좌천동을 잇는 항만순환도로 3.7km 구간의 공사를 지난달 완료하고 지난 5일부터 본격적으로 개통했다.

이에따라 2001년 개통한 신산대부두~감만동 구간에 이어 전체 길이 5.7km의 부산항 순환도로가 공사에 들어 간지 14년 만에 완전 개통됐다.

이번에 준공된 순환도로의 구간은 감만동(8부두 교차로)과 좌천동(4부

두)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의 고가도로로 앞으로 이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상·하부 도로로 분산됨에 따라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산항 물동량 운송이 크게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기존 구간 내 통행차량과 5부두 교차로의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감만·우암·용당지역 주민들은 우암로에 컨테이너 차량 등의 운행으로 교통사고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지금까지 수차례 결의대회를 열어 순환도로 조기 개통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역주민들은 "순환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앞으로 우암로에는 컨테이너 차량 통행이 전면적으로 통제돼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교통난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만 가득한 여름밤 축제

남구지역에서는 남만 가득한 여름밤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하수처리장 음악회와 작은 음악회가 바로 그것.

부산환경공단은 오는 28일 저녁 7시부터 용호동 공단 남부사업소 환경공원 특설무대에서 제3회 하수처리장 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에는 인기가수 현철과 현숙, 마야, 노라조 등이 출연해 여름밤의 정취를 돋을 예정이다. 남구노인복지관도 작은 음악회를 오는 9월8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연다. 아가펠라 그룹 메이트리가 무대에 올라 환상의 하모니를 들려준다.

☎ 628-1291~4

수술할까? 말까? 부산고려병원에 가보고~
걱정정하시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를 모두 잘하는
척추, 관절 토달케어 하는 병원이라네요

척추, 무릎관절 등을 새롭게 하는 힘- 부산고려병원!

24시간 콜센터 1670-3119

정형외과(9개과) | 내과(3개과) | 가정의학과 |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3개과) | 신경과 | 지하철 2호선 대연역 3번 출구앞



부산고려병원
KOREA HOSPITAL